

도로 확장 앞둔 정실 벚꽃터널 운명은

제주시 아연로 4차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 벚나무 존치 여부 자문 의뢰... 주민의견 수렴 예정 현재 충분한 인도 확보 안돼 보행자 안전 '적신호'

오래된 벚나무가 자리 잡아 벚꽃터널로 유명한 제주시 아연로 구간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되면서 벚나무 가로수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오라2동 정실마을 월정사에서 연동 KCTV사거리로 이어지는 아연로 2.7km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2차선인 도로를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9월이나 10월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 절차와 주민협의 등을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쯤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장 도로에 포함되는 토지의 78%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해당 구간은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벚꽃터널로 각광 받고 있지만 차량 통행량에 비해 도로가 좁고 보행로도 확보되지 않은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실마을 주민 70대 A 씨는 "도로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하다"며

"특히 퇴근시간에는 KCTV 사거리부터 시작된 차량 정체가 오라동 재활용도움센터까지 이어질 정도로 정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현장을 살펴보니 보행자들이 지나야 할 인도는 도로 한쪽에만 설치된 곳이 다수였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량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보행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거대한 벚나무 가로수가 인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구간도 있어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4시쯤에는 이 구간에서 트럭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가로수 제거나 이식이 필요한 만큼 벚나무 등 가로수 존치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시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벚나무 제거나 이식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오



28일 제주시 아연로의 벚나무들이 활짝 꽃을 피워 터널을 이루고 있다. 강희만기자

래된 수령의 가로수 문제 등도 있어 제주도 공공건축가 자문회의에 가로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쯤 해당 구간 가로수에 대한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자문회의 결과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벚나무 가로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유관 부처와 협의해 벚나무의 이식이 가능하다면 확장 도로 뒤로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용역이나 자문회의에서 해당 도로에 기존 벚나무 가로수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영기자

축산 약취 민원에 무인 측정기 첫 가동

제주시, 광령양돈단지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간대·요일별 패턴 분석 저감 자료 활용키로

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에월읍 광령양돈단지 인근에 무인 약취 측정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축산 약취 민원이 잇따르는 지역에 무인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달 들어 광령양돈단지 인근에 무인 약취 측정기를 달았고 4월부터는 실시간으로 약취와 기상 자료 측정 결과를 전송 받아 사무실에서 축산 약취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에 나선다.

현재 제주시 관내 양돈 농가는 190개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시에 접수된 축산 약취 민원은 913건에 달한다. 무인 측정기가 설치된 광령양돈단지에는 양돈 농가 4개소가 있는데, 주변 주택 등에서 출퇴근 시간대 약취 민원이 지속적

으로 이어져 왔다.

제주시는 이번에 2020년 말 설치한 무인 약취 포집기와 연계해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시간대와 요일별 축산 약취 패턴을 분석해 향후 취약 시기에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집중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해당 자료를 정밀 분석해 시설별 약취 저감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용 환경보전팀장은 "올해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등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용천수·습지 탐방로 정비 나선다

서귀포시 3억5000만원 투입... 목재 데크·난간 교체

서귀포시가 낡은 시설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용천수와 습지 4개소(용천수 2, 습지 2)에 대해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올 상반기에 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비 대상 용천수는 성산읍 농개와 안덕면 행기소물이며, 습지는 대정읍 구시홀못과 성산읍 미와미못이다.

이들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됐다.

시는 용천수에 설치된 정자, 파고라 시설 등에 대한 오일스테인 칠 공사를 비롯해 낡은 목재데크와 난간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구시홀못 습지 내 태양광경관 등 설치, 기존 데크 탐방길 오일스테인 칠 공사, 안내판 설치 등과 함께 미와미못 습지 내 준설 및 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올해 예산 18억원을 확보해 올 탐방길을 비롯해 용천수와 습지 등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공사에 나서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삼나무림 효율적 관리 모색 세계유산본부 오늘 세미나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내 삼나무림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29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삼나무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자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 강다혜기자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전면 금지

야생생물 보호·관리 법률 개정... 올해 12월 시행

제주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가축 또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 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후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대모기자

서귀포시 모바일 걷기 챌린지

서귀포시는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모바일 걷기 어플 '워크온'으로 매달 다양한 걷기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금탁기자

이에 모바일 플랫폼(워크온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걷기 활성화 사업이 연중 운영되며, 특히 1월 7000보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목표 걸음 달성자에게는 성공 기념품이 제공된다. 백금탁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 20,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광7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자선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